

<p>People often ask, “What is the best form of government in the world? Which form of government is the one God would ideally want people to have?” We who come from the Western nations of the world generally consider our representative democracies to be the most God-honoured form of government. It might surprise you to find that there is no support for such a view anywhere in Scripture. In fact, if you ask what is the ideal form of government – monarchy, dictatorship, republic, democracy, communism – the answer of Scripture is this: The best government for you is the government you live under. Paul tells us in Romans 13 that whatever form of government you are under, God is behind it. This is true even of governments that persecute Christianity, such as North Korean style dictatorship or the oppressive Roman government of Paul’s day under Emperor Nero. There is no government that can overturn God’s plan for human history. God’s purposes will be accomplished even in the most godless and repressive regimes imaginable. Why, because as Paul says in v. 1 all governmental authority originates with God.</p>	<p>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형태의 정부는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의 정부가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사람들이 가졌으면 하는 정부일까요?" 이 세상의 서방 국가에서 온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정부가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형태의 정부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견해를 지지하는 구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랄 수 있습니다. 사실, 만약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정부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 군주주의, 독재, 공화국, 민주주의, 공산주의 - 성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을 위한 가장 좋은 정부는 여러분이 현재 그 통치하에 살고 있는 정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 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정부 하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스타일의 독재 정부나 바울의 시대에 네로 황제 하의 억압적 로마 정부와 같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을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신론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에서조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1 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모든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p>
<p>And so, in chapter 13, Paul turns from the Christian’s relationship to other Christians, and to other individuals, to the wider question of how to view the state in which we live, and how to think of ourselves as citizens within a state. He is moving on to how our view of God’s mercies transforms our altitude toward “the governing authorities”, the powers that be. The focus of this chapter is how the Christian believer is to live as a citizen of his or her country. Paul shows us the Christian’s responsibility to the state;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its citizens; and then, finally, how the Christian is to live as a member of society.</p>	<p>따라서, 13 장에서 바울은 크리스천과 다른 크리스천과의 관계 및 다른 개인들과의 관계에서 방향을 돌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국가의 시민으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보다 광범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위에 있는 권세들", 즉 기존 권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야기합니다. 이 장의 초점은 기독교 신자가 내가 속한 국가의 시민으로 사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국가에 대한 크리스천의 책임; 시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p>
<p>1. The Christian’s Responsibility to the State Every Christian is to submit to the authority of civil government. Paul gives 3 reasons for this. First, because it is right. Civil governments in general are instituted by God and therefore deserve our respect and submission. And Paul may also mean that the individuals who are exercising authority are in their positions by God’s providential control of history. Daniel 4: 17 says that God rules over all human governments and “gives them to anyone he wishes”. Thus Christians are to submit “because of conscience” (Romans 13: 5) in other words, in recognition of the role God has given the state. Second, Paul says to submit because it is wise. He says that God designed human society in this way. “Do you want to be free from fear of the one in authority? Then do what is right...For he is God’s servant to do you good” (vv. 3-4). Governments are needed to hold people accountable to live in a way that makes it possible to live together. Without the threat of punishment, human self-interest would make society impossible. We submit so that government can work. If we don’t submit, there is no possibility for social order. Verses 6-7 suggest a third</p>	<p>1. 국가에 대한 크리스천의 책임 모든 크리스천은 시민 정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3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 정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존중과 복종을 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바울은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들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4 장 17 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양심 때문에" (로마서 13:5),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국가에 주신 역할을 인식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둘째, 바울은 복종하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이런 방식으로 설계하셨다고 말합니다.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3-4 절). 정부는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한 방식으로 살도록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필요합니다. 처벌의 위협 없이는 인간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사회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복종합니다. 복종하지 않는다면, 사회 질서는 불가능합니다.</p>

<p>reason – namely that we are to submit because it is fair. Paul seems to be indicating that governing is hard work. “This is also why you pay taxes, for the authorities are God’s servants, who give their full time to governing. Give everyone what you owe him” (vv. 6-7a). We are obliged to give them what we owe them. Since they do their part – ruling, we must do ours – submitting.</p>	<p>6-7 절은 세 번째 이유를 제시합니다 - 즉 복종하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스리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6-7a 절). 우리는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것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맡은 바, 통치를 다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맡은 바, 복종을 해야 합니다.</p>
<p>At first glance, Paul seems to put the requirements of submission in absolute terms. This becomes starker when he puts the command in negative terms: “He who rebels against the authority is rebelling against what God has instituted”, and to do that is to “bring judgment on themselves” (v. 2). The strength of this statement intensifies, doesn’t it, when we remember that Paul was writing about a very non-Christian government – the pagan Roman empire under emperor Nero? The “authorities” Paul has in view were at best unfriendly, and at worst actively hostile, toward the church.</p>	<p>언뜻 보기에 바울은 복종에 대한 요구를 절대적인 것으로 적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바울이 이 명령을 부정적인 말로 할 때 더 적나라해 집니다: "권세를 거슬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슬림이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심판을 자취하라라" (2 절). 이 구절의 강도는 바울이 바로 비 기독교 정부인, 네로 황제 치하의 이교도 로마 제국에 대해 적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낼 때 더욱 강해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염두에 둔 "권세"는 교회를 향해 잘해봐야 비우호적이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적대적이었습니다.</p>
<p>However, although the default position of the Christian (every Christian) to the state (any state) is to submit, within this passage there are some hints that this authority is not absolute. The <u>first hint</u> is in v. 7 “Give everyone what you owe him”, including taxes...revenue...respect...and honour”. This is a clear echo of Jesus’ famous saying: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Matt 22: 21). Jesus says “yes” to paying Caesar taxes but “no” to paying Caesar worship – that is a definite “no” to unqualified obedience to Caesar. Jesus is clearly saying (and Paul no doubt has this teaching of Jesus in mind) that the civil magistrate has a limited sphere of authority. The <u>second hint</u> is in Romans 13: 3-4: “For rulers hold no terror for those who do right” (v. 3); “for he is God’s servant to do you good” (v. 4). Since the civil magistrate, the governing authority, is “God’s servant”, that clearly implies a responsibility to operate under God’s moral order. A servant is not free to do whatever he or she wishes. In the “Lion King”, the young cub and son of the king, Simba, says, “I thought being a king meant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His father, King Mufasa, replies, “There’s more to being a king than that!” Also, if rulers are to support the doing of “right”, that implies that they must not require the doing of “wrong” – that which is disobedient to God’s moral order.</p>	<p>그러나, 국가 (어떤 국가이든)에 대한 크리스천 (모든 크리스천)의 기본 자세가 복종하는 것일지라도, 이 단락에 이 권세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u>첫 번째 힌트</u>는 7 절에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이는 세금...국세...두려움...존중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에 대한 명확한 울림입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태복음 22:21). 예수님께서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는 "yes"라고 하시지만, 가이사를 경배하는 것에는 "no"라고 하십니다. 가이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순종이기에 그것은 분명한 "no"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바울은 의심의 여지없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시민 치안 판사는 제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u>두 번째 힌트</u>는 로마서 13:3-4 에 나와 있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3 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4 절). 시민 치안 판사, 즉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사자"이므로, 이는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 합니다. 일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자유가 없습니다. "라이언 킹"에서 왕의 아들인 어린 새끼 사자, 심바는 말합니다, "저는 왕이 되면 무엇이든 원하는 데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의 아버지인 무파사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된다는 것에는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단다!" 또한, 만일 통치자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지지하려 한다면, "악한 행위" - 즉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에 불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p>
<p>Although these are only hints implicit in Paul’s words here, they are made explicit elsewhere in the Bible. In Acts 5: 29, Peter makes the principle clear when told by the Jewish authorities to stop preaching about Christ and his resurrection: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en!” So the Bible gives a very clear basis for civil disobedience – namely, if the state commands what God forbids, or if the state</p>	<p>비록 이것이 여기 바울의 말에 암시된 유일한 힌트들이지만, 이 힌트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5:23 에서 유대 권세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중지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서 성경은 시민 불복종에 대한 매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 즉, 만일 국가가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p>

<p>forbids what God commands, then civil disobedience is a Christian duty. You have examples in Scripture of believers who courageously disobey and oppose civil authority when it requires behaviour of it citizens that is disobedient to God. The classic biblical example of this is Daniel and his friends. In pagan Babylon, Daniel,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ere actively involved in civic affairs, even in a pagan society. But when citizens were commanded to do what was forbidden by God (idol worship in Daniel 3), or forbidden to do what was commanded by God (prayer to the Lord in Daniel 6), then the believers disobeyed the state and submitted to the punishment, with an attitude of fearless respect (Daniel 3: 16-18).</p>	<p>명령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금지한다면, 시민 불복종은 크리스천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같이 시민의 행동이 요구될 때, 행정 당국에 용기 있게 거역하고 맞선 신도들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전적인 성경의 예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이교도 바빌론에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심지어 이교도 사회에서도 시민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다니엘 3 장의 우상 숭배)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 (다니엘 6 장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때에 믿는 자들은 국가에 불복종하고 두려움 없는 태도로 처벌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 3: 16-18).</p>
<p>We can therefore identify 3 ways in which Christians are to live with regard to their stat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Submitting</u> (vv. 1, 5a). This, of course, means that we must obey the state. Under this heading are included paying taxes (vv. 6-7), voting and serving in office. 2. <u>Submitting according to conscience</u> (v. 5c). This means we must evaluate the state. Others may obey only out of fear of possible punishment (v. 5b). To obey only out of a fear of punishment is obedience out of self-interest, and that will lead you astray. Paul’s radical principle is that we obey our government out of our Christian conscience, out of our obedience to God alone. This is radical because it cuts two ways. On the one hand, we will obey the state even when there are no civic consequences (no possible punishment), because our motivation is obedience to the God who established the state. On the other hand, we can never submit uncritically to what the state tells us. If it requires us to violate our conscience, we must disobey. And so if the Australian Government required me as a registered marriage celebrant to conduct same-sex marriages, I would have to disobey because to do so would be against my conscience. Conscience at one and the same time obliges us to be obedient and sets a limit to that obedience. 3. <u>Submitting in a respectful, honouring manner</u> (v. 7). We are not only to comply with civil authorities, but to do so in a way that shows them respect, honour and courtesy. This is the same issue we face in the family (with parents) and the church (with elders). Even when the individuals in these positions are not worthy of much respect, we show respect to the authority structure that stands under and behind them. 	<p>우리는 따라서 국가와 관련해 크리스천이 따라야 하는 3 가지 삶의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복종</u> (1 절, 5a절). 이는 당연히 우리가 국가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내고 (6-7 절), 투표하고 공직에서 섬기는 것이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u>양심에 따라 복종하는 것</u> (5c절). 이는 우리가 국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진노 때문에 복종할 수도 습니다 (5b절). 단지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것은 사리사욕에서 나온 복종이며, 이는 여러분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바울의 급진적인 원칙은 우리가 크리스천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상반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급진적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어떠한 민사적 결과 (처벌 불가능)가 없을 때조차 국가에 복종할 것인데, 이는 우리의 동기가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국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결코 무비판적으로 복종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위반하도록 요구한다면, 우리는 불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호주 정부가 등록된 결혼 주례사로서 저에게 동성 결혼을 거행하도록 요구한다면, 저는 제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복해야 할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 순종에 제한을 둡니다. 3. <u>존경과 공경의 태도로 복종하는 것</u> (7 절). 우리는 행정당국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존중과 공경, 예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 (부모에 대해)과 교회 (장로에 대해)에서 마주치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위치에 있는 개인이 그다지 존경 받을 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 아래와 그들 뒤에 있는 권위 구조를 존중해야 합니다.
<p>2. <u>The State’s responsibility to its Citizens</u> First, the negative function of the state is to punish</p>	<p>2. <u>시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u> 첫째, 국가의 부정적인 기능은 죄를 처벌 하는 것입니다.</p>

<p>wrongdoing. “He (the ruler) does not bear the sword for nothing. He is God’s servantto bring punishment” (v. 4). There is a complete consensus among all Christians (and most everyone else) that there can be no civil order unless the state punishes wrongdoing. Murder, theft, rape, various forms of lying and fraud, assaults and so on are universally seen as undermining a peaceful harmonious society. What about the nature of the punishment Paul refers to? The “sword” probably means the power to inflict penalties up to and including death. But this is not a passage which gives us much to go on when it comes to the issue of capital punishment. The word “sword” at least means the right to use force and arms, but we cannot prove from this particular text the validity of capital punishment.</p>	<p>"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보응하는 자니라" (4 절). 국가가 죄를 처벌하지 않는 한 시민 질서는 있을 수 없다는 데에 모든 크리스천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동의합니다. 살인, 절도, 강간, 다양한 형태의 거짓말, 사기, 폭행 등은 보편적으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처벌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칼'은 아마도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죽음을 포함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형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많은 논쟁의 근거를 주는 단락은 아닙니다. '칼'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무력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하지만, 이 특정한 글에서 사형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p>
<p>Second, the positive function of the state is “for the good”. What does Paul mean? Of course he says the state is to be “for” the good! But he doesn’t say exactly what “the good” is – does he mean good behaviour? or perhaps good conditions? Nor does he say how the state is to function toward the good – is it to reward it? is it to promote it? Some commentators believe that Paul is saying that the state promotes “the good” – not just of the individual, but <u>for the individual</u>. That may mean promoting the gener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hysical welfare of people by a variety of means. Such an interpretation increases the scope of government. Since Paul left “the good” undefined, maybe he meant for us to think of it broadly. Perhaps the most natural rendering is this: The state both promotes and rewards “the good” – that is right behaviour and relationships - and restrains and punishes “the evil” – wrong behaviour and relationships. So Romans 13 rules out the extremes of either an extremely limited government or a very powerful one.</p>	<p>둘째, 국가의 긍정적인 기능은 "선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바울은 국가가 선한 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선한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선한 행동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마도 선한 환경? 또한 바울은 국가가 어떻게 그 선을 위한 방향으로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선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한 일을 홍보하는 것? 몇몇 해설자는 바울이 국가는 "선한 일" - 단지 한 개인의 선한 일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선한 일을 촉진시킨다고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제, 사회, 문화, 신체적 복지를 촉진시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정부의 영역을 늘려줍니다. 바울이 "선한 일"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두었으므로, 아마 그는 우리가 그것에 관해 생각해보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이렇습니다: 국가는 "선한 일", 즉 올바른 행동과 관계를 촉진시키며 보상합니다 - 또한 국가는 "악", 즉 잘못된 행동과 관계를 저지하고 처벌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13 장은 극단적으로 제한적인 정부나 또는 매우 강력한 정부와 같은 극단적 경우를 배제시킵니다.</p>
<p>3. <u>Living As Part of Society</u> It is easy to interpret vv. 8-10 very individualistically, as simply teaching each of us to love our “fellowman” (v. 8), our “neighbour”. The section on the state, “the governing authorities”, is wedged between the commands to love our enemy (12: 17-21) and love our neighbour (13: 8-10). Is this just random or is there a connection? First, look at the connection between 12: 17-21 and 13: 1-7. When Paul commands us to “overcome evil with good” (12: 21), he is saying that Christians are to overcome the evil of our society by doing good (deeds of compassion, mercy and generosity) and by living that out in our society. Now look at the connection between 13: 1-7 and 13: 8-10. In v. 7 he says, “Give everyone what you owe him”, and he is talking of the state, the government, specifically (he refers to taxes). Verse 8 also speaks of paying what we owe everyone, yet now Paul has shifted to the whole body of our neighbours – all the citizens we live with. We are not</p>	<p>3. <u>사회의 일환으로 사는 것</u> 8-10 절이 단순히 우리 각자에게 "남" (8 절),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매우 개인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국가, 즉 "위에 있는 권세"에 관한 부분은 우리의 원수를 사랑 하는 명령 (12: 17-21)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13: 8-10) 명령 사이에 끼어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무작위일까요 아니며 어떤 연결이 있는 것일까요? 첫째, 12:17-21 과 13: 1-7 사이의 연결을 보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2:21)고 명령할 때, 그는 크리스천은 선 (연민과 자비, 관용의 행위)을 행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악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3:1-7 과 13: 8-10 사이의 연결을 살펴봅시다. 7 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또한 그는 국가와 정부에 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금에 관해 말합니다). 8 절 또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이제 바울은 그 초점을 우리 이웃 전체, 즉 우리와 함께 사는 모든 시민으로 옮깁니다. 우리는 단순히 국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 및 시민 생활에</p>

<p>simply to participate in the state, but in public and civic life in general. In our neighbourhoods, communities and cities, Christians are to become great doers of “good”.</p>	<p>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 지역 사회와 도시에서, 크리스천은 "선"을 행하는 훌륭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p>
<p>Jeremiah is the great biblical example of over-coming evil with good in this <u>corporate</u> way. He calls on the Jewish exiles in Babylon to overcome evil by seeking the prosperity of the city. When Jeremiah wrote a letter to them, they were staying in an enclave by themselves, refusing to participate in the “unclean” pagan city. Jeremiah does say in chapter 27 that there will be a judgment on the Babylonian king and the city of Babylon, if the city does not repent – and so the Israelites should not close their eyes to its wickedness. Yet the Jewish exiles are to become involved with the city and seek its peace and prosperity (Jeremiah 29: 7). He tells them to build houses and settle down (v. 5), to marry and have sons and daughters (v. 6a) and to increase in number, not decrease (v. 6b), to keep their identity, and to pray to the Lord for the city (v. 7b). So Jeremiah is telling believers to “overcome evil with good” by bringing their love and faith to bear on the public good of the city in which they live. This is the setting for Paul’s directions in Romans 13: 8-10.</p>	<p>예레미야는 이러한 <u>협력</u>의 방식으로 악을 선으로 극복한 성경의 좋은 예입니다. 그는 도시의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악을 극복하기 위해 바빌론에 있는 유대인 망명자들을 부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은 스스로 고립된 거주지에 머물며, "부정한" 이교도 도시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27 장에서 만일 도시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바빌론 왕과 바빌론의 도시에 심판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스라엘인들은 그 사악함에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망명자들은 그 도시에 참여하고 도시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 7). 그는 그들에게 집을 짓고 정착하여 (5 절),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낳고 (6a),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으며 (6b),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도시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7b)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공공 이익을 위해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쏟음으로 "선으로 악을 극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3: 8-10 에 나타난 바울의 지침에 대한 배경입니다.</p>
<p>In verse 8, Paul is moving from his thought in v. 7 – not letting our taxes go unpaid or withholding the honour we owe the authorities – to all our debts, which must not be left outstanding. Then he moves on to the ongoing debt God’s people owe their society: “the continuing debt to love one another” (v. 8). This debt of love ties in with our duty to keep the law, doesn’t it? Why? Because the law – commandments 5-10 of the Ten Commandments – is summed up in this one rule: “Love your neighbour as yourself” (v. 9). God’s law is God’s guideline on how to love others, how to do good for those around us. Indeed love is fulfilling the law (v. 10). Love is really just following the law. If we want to love others, we will obey God’s commands.</p>	<p>8 절에서 바울은 7 절에 적힌 그의 생각, 즉 세금을 내지 않거나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진 모든 빚, 그리고 그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사회에 진 지속적인 빚에 대해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8 절). 이 사랑의 빚은 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의무와 결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율법이 - 십계명의 5-10 계명 - 이 하나의 규칙으로 요약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9 절). 하나님의 율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 하는 방법,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실제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10 절). 사랑은 정말로 단지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p>
<p>Our society doesn’t see it that way, does it? In the moment, it often seems that the loving thing to do is to break the law. For example, often we know that the truth will hurt someone, so we tell a lie. But Paul warns us not to think that we are wiser than God in determining what will hurt or help someone. The law is God’s way of saying: “Do you want to do your neighbour no harm? Well, here’s how! Follow these guidelines, not your wisdom or instincts”. In serving our neighbourhood, our community, our city, we as Christians must avoid two extremes. First, there is the temptation to live in a ghetto of believers, holding our secular society at arm’s length and failing to love it by serving it and working for its good. But, second, we must maintain our identity as God’s people – serving the state while refusing to cease living as God’s obedient servants. We do not love the society in which we live by compromising on obeying God’s standards – rather we love</p>	<p>우리 사회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 법을 어기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종 우리는 진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무엇이 상처를 주거나 도움이 될지 결정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율법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여기 그 방법이 있어! 자신의 지혜나 본능이 아니라 이 지침들을 따라".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역 사회, 우리의 도시를 섬기는데 있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두 극단적인 것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세속 사회는 멀리 거리를 두고 그 사회의 선을 위해 섬기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 사회를 사랑하지 않고, 믿는 자들의 공간에서 자신들끼리 살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사는 것을</p>

<p>it by obeying God’s commands.</p>	<p>그만두라는 것에 굴하지 않으면서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는 것을 타협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사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사랑합니다.</p>
<p>In order to live like this, we need to understand “the present time” (v. 11). We need to know and remember that we are citizens both of the state, the government in this world that God has established over us, and of the eternal kingdom, God’s kingdom which is breaking into this world. We must keep our perspective. What is the nature of this present time? “The night is nearly over; the day is almost here” (v. 12a). The world will not go on much longer – the day of Christ’s return is near. Our life on earth is brief. We must be sure to build our lives on eternal things, the things that last –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Jesus Christ, truth, righteousness and love. We must always live with this perspective, remembering the wonderful truth that each day of our lives, “our salvation is nearer....than when we first believed” (v. 11).</p>	<p>이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이 시기" (11 절)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이 세상에서의 국가, 즉 정부의 시민이자 영원한 왕국, 즉 이 세상으로 몰래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유지 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12a). 이 세상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재림 일이 가까워졌습니다. 땅에서의 우리 삶은 순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들, 지속될 것들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진실, 정의 그리고 사랑과 같은 것들에 우리의 삶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삶의 매일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1 절)는 놀라운 진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p>
<p>Knowing this leads us to “put on the armour of light” (v. 12b) and “behave decently, as in the daytime” (v. 13). In effect, we are to imagine that the day has dawned, that the Lord Jesus is right before us, and then ask: “Now, how would I behave, in the presence of my Lord?” To help us grasp what he is saying, Paul switches the metaphor of what we must “put on” as citizens of the heavenly kingdom, God’s kingdom, living in this world, by exhorting us in v. 14: “Clothe yourselves with the Lord Jesus Christ, and do not think about how to gratify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 In one sense we have already “put on Christ”, haven’t we, in that we are justified, legally righteous before God? But what Paul is saying here, in chapter 13, is that we have to live as if we are clothed in Jesus Christ. For example, if a man is wearing a dinner suit and a woman is in a long gown and heels, it has an effect on their behaviour. You look in the mirror and see yourself dressed for an occasion of formality and dignity, so you behave accordingly. Christian: remember who you are wearing, remember what he did for you and what your salvation cost him. In everything you do, in all your attitudes to and conduct as part of the state in which you live and the society of which you are a part, remember where you are heading, your final destination – heaven – and remember who you are – a child of God!</p>	<p>이를 안다는 것은 우리를 "빛의 갑옷을 입고" (12b),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게" (13 절)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날이 밝았고, 주 예수가 바로 우리 앞에 계시다고 상상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자 이제,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천국, 즉 하나님 왕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은유를 전환해, 14 절에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 13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저녁식사용 정장을 입고 있고, 한 여자는 긴 드레스와 하이힐을 신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이 공식 석상을 위해 차려 입은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크리스천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무슨 값을 치렀는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사는 국가와 여러분이 속한 사회의 일환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태도에서, 여러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최종 목적지 - 천국 -를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p>

Amen